

삼성, 8월초 갤럭시 언팩... 폴드3·플립3·워치4 공개 유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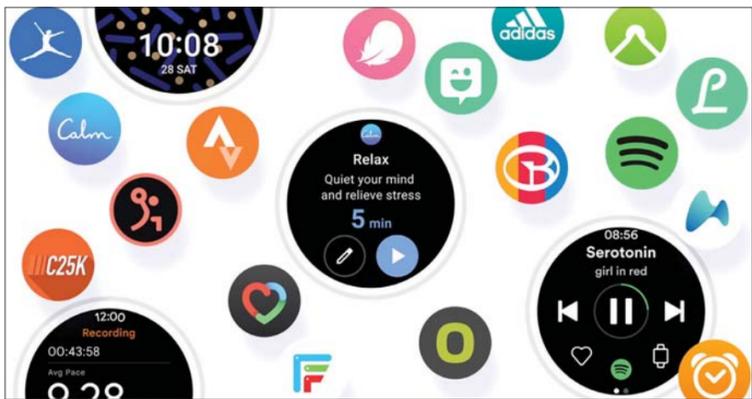
언팩행사 일정 8월11일로 좁혀져
노트 대신 폴더블 중심 라인업 재편
주름해결·가격하락 등 기대감 ↑

삼성전자 갤럭시가 더 강력해진다. 새로운 기술은 물론, 수준 높은 연결성으로 생태계를 확대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8월 초 하반기 언팩 행사를 열고 새로운 갤럭시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이다.

갤럭시Z폴드3와 갤럭시Z플립3, 갤럭시워치4 공개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당초 삼성전자는 하반기 언팩에서 노트 시리즈를 발표해왔지만, 이번에는 노트 대신 폴더블 제품을 중심으로 라인업을 재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일정은 8월 11일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인도 한 매체를 통해 유출된 마케팅용 이미지에 8월 11일이 나타나



원 UI 워치

/삼성전자

있기 때문. 이번 유출 이미지는 일부 트위터란에 의해 유출됐던 이미지와 같은 형태로 신빙성이 높다는 평가다.

유출된 갤럭시 Z플립2는 전작과 비슷한 디자인이지만, 베젤을 줄이고 화면을 키우면서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웹캠 스냅드래곤 888을 탑재하는 등 성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갤럭시Z폴드3도 해외 여러 트위터러안과 매체들을 통해 유출본이 떠돌면서 윤곽이 드러난 상태다. S펜 수납공간을 내장하고, 카메라를 디스플레이 안에 숨기는 'UDC' 기술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새로운 폴더블폰 가격을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출



인도 기즈넥스트에서 공개한 삼성전자 갤럭시 Z플립3 이미지 /기즈넥스트 캡처

고가 20% 가량 낮춰 노트시리즈를 대체하게 할 수 있다는 것. Z플립3는 100만원대 초반, Z폴드3는 100만원대 후반으로 예상된다.

특히 폴더블폰 가장 큰 약점인 주름을 해결했다는 전망이나오면서 기대감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트위터러안 아이스유니버스가 주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언급하면서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적용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미국 코닝으로부터

새로 공급받는 초박막강화유리(UTG)가 핵심일 것으로 추정된다.

갤럭시 연결성도 이번 언팩을 통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MWC에서 공개된 '원 UI 워치'를 탑재할 새로운 워치 시리즈를 통해서다.

원 UI 워치는 갤럭시 워치에 탑재될 새로운 UI로, 구글과 협업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결성을 대폭 높인 것이 특징이다. 기기를 연결해 두기만 하면 스마트폰에서만 업데이트나 설정을 변경해도 모든 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것. 서드 파티 지원도 확대해 새로운 앱들도 대거 지원하게 됐다.

스마트싱스 업그레이드도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새로운 갤럭시 북에서도 스마트싱스를 지원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갤럭시워치 신제품에서도 스마트싱스를 지원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금융위 "CEO·임원 성과보수, 기업가치 연계"

기업 49% "상반기 목표실적 초과 기대"

보험사 단기실적주의 개선 TF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 기간 확대
기업가치 훼손 책임에 따라 환수 방침

앞으로 보험사의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의 보상체계가 바뀐다. 보수는 현금 외 주식을 지급해 기업가치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는 기간을 확대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장기 기업가치 훼손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환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보험사 단기실적주의 개선 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연구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TF는 우선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의 총 보수 대비 기본급은 각각 59.5%, 64.2%다. 미국이 각각 11%, 16%인 것과 비교하면 5배가량 높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차년도 이후 이연지급하고 있지만 최소 이연기간이 3년으로 짧다. 미국, 호주의 경우 보수를 최대 7년까지 이연지급하도록 하고, 장기성과에 따라 최대 7년까지 성과급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TF는 경영진 보수가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와 연계될 수 있도록 현금 외 주식기반 보상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이연지급되는 보수의 비중과 이연기간을 확대해 장기 기업가치 훼손에 책임이 있는 경우 성과보수를 환수한다.

TF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등은 "임원보수체계는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인 만큼 기업의 장기성과와 리스크관리의 효율적인 통제수단으

로 활용할 수 있다"며 "임원 중 최고경영자의 이연지급과 장기보유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보험특성에 맞는 비재무적 지표(고객만족도, 불건전영업 적발건수) 활용을 확대하고, 활용방법·기준, 평가결과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사들이 질 중심의 경영, 경영체질 개선 등 비계량적 지표를 성과평가에 고려하고 있다고 공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반영비율이 공개되지 않아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통한 감시·견제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원, 보험업계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작업반을 통해 보험업계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국내외 사례 등을 상세히 분석하겠다"며 "TF 등을 통해 경영진 성과 평가 및 보수체계 공시기준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대한상의 3분기 제조업 BSI 조사

전 분기비 4p 상승 103p 집계
2014년 이후 7년만에 긍정적 전망

국내 제조기업이 올 3분기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반등과 국내 백신접종 확대로 내수가 좋아질 거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기업들의 긍정적인 경기 전망은 2014년 3분기 이래 7년 만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전국 24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직전 분기보다 4p 상승한 103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경기전망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넘어서면 3분기 경기를 2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대한상의는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회복에 따라 최근 수출이 2개월 연속 전년 대비 40%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 국내 백신접종률도 크게 늘어 하반기 내 집단면역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등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수출(112)과 내수(101)부문의 경기전망지수는 모두 기준치를 넘어섰다. 업종별로는 기계(120)와 제약(113), IT·가전(108), 의료정밀(106), 식음료(105) 등이 기준치를 웃돌았다. 미국 공공 인프라 확대정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기계 업종의 체감경기가 특히 좋았고, 코로나 특수성과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바이오·소비재의 경기전망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정제마진이 낮아진 정유석화(96)를 비롯해 조선·부품(85), 출판인쇄(81), 비금속광물(80) 등의 업종은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상반기 목표실적 달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절반가량(49.3%)이 '상반기 목표치를 달성 혹은 초과할 것'이라고 답했다.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도 절반가량 됐지만, 코로나 이전(2019년 3분기 BSI 조사)의 응답률(60.6%)과 비교했을 때, 경기회복 기대감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

금융정보분석원, 불법 차명계좌 전수조사

9월 24일까지 조사... 거래중단 등 대응

일부 중소 가상자산(가상화폐)거래소가 금융회사 여러 곳을 옮겨다니면서 불법 차명계좌 등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는 9월 24일 사업자 신고 시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거래 중단 등의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30일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15개 금융유관기관과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

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FIU에 따르면 오는 9월 24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불법차명계좌 등을 만들어 운영하는 거래소가 늘고 있다.

특히 일부 중소기업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금융회사 여러 곳을 옮겨다니면서 위장계좌, 타인계좌 개설·중단을 반복하고 있다.

FIU관계자는 "이들은 대부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려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가상자산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FIU는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한다. FIU와 금융회사 간 핫라인을 개설해 위장계좌·타인계좌 거래중단, 의심거래(STR) 등을 공유하고 거래중단 등의 대응조치를 진행한다.

아울러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금융회사들은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및 영업계좌를 모니터링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경우 FIU에 보고해야 한다.

/나유리 기자

韓 국제정보보호지수, 세계 4위 차지

법률·역량·협력 3개 영역 만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29일 13시 30분(한국 시간 20시 30분)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제4차 국제정보보호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 순위에서 조사대상 194개국(설문참여국 150개국) 중 한국이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이 1위를 차지했으며, 영국과 사우디 2위, 에스토니아가 3위를 기록했으며, 싱가포르와 스페인도 우리나라와 공동으로 4위를 차지했다.

〈韓 4차 국제정보보호지수 평가점수〉

구분	획득 점수
법률	20
기술	19.54
조직	18.98
역량	20
협력	20

한국은 전체 5개의 평가 영역 중 법률·역량·협력 등 3개 영역에서 만점을 획득했으며, 나머지 기술, 조직 영역 또한 상위권을 기록했다.

/최윤정 AI 전문기자 echo@